

기획으로서의 브라질 이민과 『사상계』 여성 이민자 표상

발표자 복경연(부산대)

1. 1960년대 '기획 이민'과 제3세계

1960년대는 '기획 이민'과 함께 반동 이후라는 시대적 맥락이 겹쳐지면서 제3세계로의 이민 경향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주변국의 성공 사례들에 기대어 당시 일종의 남미 열풍과도 같이 중남미 지역으로의 이민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왔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사상계』 역시 제3세계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민 담론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연재된 것이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인 '백옥빈'씨의 이민 일상을 담은 후기 『브라질 移民通信 (이민통신)』으로, 이는 광부나 농민 등 기존의 디아스포라의 기억과는 달리 '가정주부'의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층위가 구분된다. 지식인의 사적 발화에 주목함으로써 이전의 포로 수기와는 구분되는 재브라질 한인 여성의 이민에 관한 새로운 기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사상계』의 이민담론과 브라질 이민 후기

이민담론의 형성

1960년대로 들어서면서 『사상계』의 해외담론은 일반 시민들의 기행문·이주기록이 가시화되기 시작한다. 1961년 10월호에서는 〈韓國(한국)의 移民(이민)〉이라는 표제로 이민과 관련한 글을 수록한 '이민 특집란'을 마련하기도 했다.

브라질에 대한 관심

“브라질 하면 移民을 연상할 만큼 브라질은 移民들의 메카(Mecca)라고 하겠다.” 넓은 토지에 반비례하는 노동력의 부족은 브라질을 이상적인 이민 국가로 상상하는 주요 명분이 되었다.

- ① 제3세계로의 관심과 더불어 라틴 아메리카 계열이나 식민지 출신의 개발도상국으로의 이민 논의가 진행
- ② 선구적으로 남미 이민을 진행한 주변국 일본의 성공 사례가 주요하게 언급되며 '남미 드림' 열풍
→ '니푸 브리질레이루' 혹은 '일게(브라질)인' 등 민족 공동체를 형성한 일본의 사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맞으나, 한국은 분단과 한국전쟁 등 복잡다단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브라질 이민이 발전했다.

반공포로의 이민

주영복의 「내가 겪은 조선전쟁」(1991)과 「76인의 포로들」(1993) 등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사실 한국의 브라질 이민은 앞서 반공 포로들의 이민이 시초가 되었다. 한국의 중남미 기획 이민은 해방 이후 미국의 영향 하에 수립된 개발 전략과 외화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발전해왔으며, 이후 주영복, 김수로 등의 포로들이 1960년대 기획이민을 건인하는 초창기 이민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반면 백옥빈 후기가 연재된 1960년대 무렵의 기획 이민은 개발과 외화획득이라는 경제적인 요인이 큰 작용을 했다.
1960년대 백옥빈의 브라질 이민은 반공포로들의 이민과 어떻게 구분되는가?

3. 이민주부 정체성과 공동체 속 사적 발화

백옥빈의 『브라질 移民通信』

1963년
2월- 아리랑에 드새는 移民航路-한 移民主婦의 日記
3월- 移民船南印度洋을 通過-故國의 鄉愁를 달래주는 豆장의 韓國版 레코드
4월(사상계 창간 10주년 특별 기념 중간호)- 不安해지는 마음을 달래면서
5월- 브라질의 韓國人-謝肉祭의 흥분 속에서 香水의 洗滌을
8월- 아리랑村 GUARAREMA: 브라질 路邊에 핀 무궁화
10월- 親切한 브라질 사람들: 기쁘나 슬프나 노래로써 鄉愁를 달래는 韓國移民들

1964년
1월- 브라질의 歡喜-환희 뒤에는 鄉愁의 情이 잇달아 서린다
5월- 鄉愁를 달래며-첫 번째 새해를 맞이하는 브라질의 韓國人들
6월- 異域에서 맞은 3·1節-3·1精神이어받아 在伯僑民舍心하자
7월- 브라질 軍部革命과 僑胞-赤色으로 禍를 입는 韓國系·中國系·東洋人들
10월- 異域에서 出生한 2世들
11월- 【特派員 通信(브라질通信)】 2年半이란 歲月을 보내고 - 雜草만이 우거진 아리랑 農場

1966년
9월- ② 브라질* 黑女에의 향수 - 太陽을 상징하는 화려한 사육제



1963년부터 1966년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사상계』는 왜 '평범한 여성'인 백옥빈씨에게 후기 연재를 부탁한 것일까?



(『브라질 移民通信』 1편의 표지)

「꼬마 三重奏閣」의 어머니는 甲板 위의 除夜の 高痛소리를 들으며 「갖은 추억을 싣고 떠나는 一九六二年이여! 안녕!」이라고……”

→어머니의 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장과 이민주부라는 표제는 유사하게 맞물리면서 독자들에게 친근감을 전달한다.

지식인 공동체

*한편, “패전 포로이자 민족을 버린 반역자”라는 자책과 자학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으며, “조국을 등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을 토로하는 반공포로들의 후기와 다른 방식으로 백옥빈의 일기는 정치성을 내포한다.

1963年 4月 20日
오후 1시부터 이곳 시내 중국요리집에서 고국의 전 世界日報(세계일보)를 통해서 알려져 있는 反共靑年(반공청년) 주영복씨의 결혼 피로연에 참석했다. 신부는 요사이 한국에서 비행기로 온 최여사이다. 우리 한국인을 비롯해서 외국인의 그의 友人(우인)들이 많이 뭉인 가운데 뜻깊은 자리였다. 우리는 영자가 있는 물감을 다 모아서 소월의 시 “부부”를 적은 간단한 그림을 선사했다.
-『브라질 移民通信(이민통신)』 1963년 8월호 중-

- ① 기획 이민 1세대와 초창기 이민자들의 만남이 종종 발견
- ② 백옥빈이 이민 사회에 안정적으로 편입될 수 있었던 시대적 맥락이 드러나는 한편, 농민 노동자가 아닌 지식인(남성)의 시각이 도출
- ③ 이민자들 간의 결혼을 주요하게 언급(총 10번의 결혼사가 등장)

4. 나가며

(고광순) 그래도 아리랑농장에 들어간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땅은 샀으니깐

결론과 의의

백옥빈 후기는 결국 브라질 내부의 이민사회를 공고히 하고, 그녀의 말처럼 브라질 내의 '제2의 한국'을 안정적으로 형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이민 세대와 당시의 이민자들이 마주치는 지점들을 통해 기존의 광부, 혹은 농업 노동자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이민 기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